

202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도덕적인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는 윤리학이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 ①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도덕 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규범을 연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명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性)은 본질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은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해약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운 경험이다.
 을: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승인을 거쳐서 출산을 의도하여 행하는 성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① 갑: 성의 쾌락적인 욕구보다 생식적인 욕구가 중시되어야 한다.
- ② 갑: 성은 어떠한 도덕적 제약 없이 자유 의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③ 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남녀 사이의 성은 언제나 도덕적이다.
- ④ 을: 혼전 성은 출산이 전제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는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 보 기 >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ㄴ.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ㄷ.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종교적 교설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 윤리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 다양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이러한 문제는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논증적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합의해 나가야 합니다.

3. 그렇다면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토론 참여자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4. 모든 토론 참여자는 진실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해야 합니다.

- 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휘해야 한다.
- ② 토론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 ③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상대방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논증적인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⑤ 합의를 위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국가는 자연적이고, 개인에 앞선다. 각 개인은 국가 없이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의 존재이다.
 을: 국가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 형성된다. 각자는 자신의 모든 힘을 국가에 양도하며, 국가는 완전한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
 병: 국가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수 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 통치자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절대적 권력을 지닌다.

(나)

<법 레>
 →: 비판의 방향
 A ~ F: 비판의 내용

<예 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② B, E: 국가 안에서만 구성원들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짐을 간과한다.
- ④ D: 입법권은 통치자만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 ⑤ F: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탈은폐의 방식에 완전히 제압된 현대 기술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뒹달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현대 기술에 의해 쓸모 있는 부품으로 환원된다. 인간은 현대 기술로부터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여 변형시키고 저장하라는 도발적 요청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주문받는 대로 행동하여 현대 기술의 근원적인 부품으로 전락한다. 인간이 현대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 보기 >

- ㄱ. 인간은 현대 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 ㄴ. 인간은 현대 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ㄷ. 현대 기술은 인간이 성찰해야 할 가치판단의 대상인가?
- ㄹ. 현대 기술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연을 은폐시키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군자(君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인(仁)과 예(禮)로써 타고난 선한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 욕망을 적게 하는 것[寡欲]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을: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다투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물과 같은 이런 덕(德)을 가진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한다.

- ① 갑: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② 갑: 군자가 되기 위해서 사욕(私欲)을 극복해야 한다.
- ③ 을: 다수의 관점에 따라서 시비(是非)를 가려야 한다.
- ④ 을: 분별적 지식을 쌓아 부쟁(不爭)의 덕을 길러야 한다.
- ⑤ 갑과 을: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예법(禮法)을 익혀야 한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죽음은 중생들이 되풀이하며 받은 몸에 온기가 없어지고 오온(五蘊)이 흩어지는 것이다. 누구든 죽고 나면 나쁜 업(業)을 지은 존재는 지옥에 떨어지고 선을 행한 존재는 천상에 오르며 도(道)를 닦아 익힌 존재는 번뇌가 다해 열반에 든다.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감각에 달려 있지만, 원자들로 구성된 영혼이 죽음에 의해 흩어지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준다.

< 보기 >

- ㄱ. 죽음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 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해체된다.
- ㄷ. 죽음은 경험 가능한 고통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 ㄹ.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합리적인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를 실제로 합리적인 존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태아는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합리적인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를 실제로 합리적인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태아는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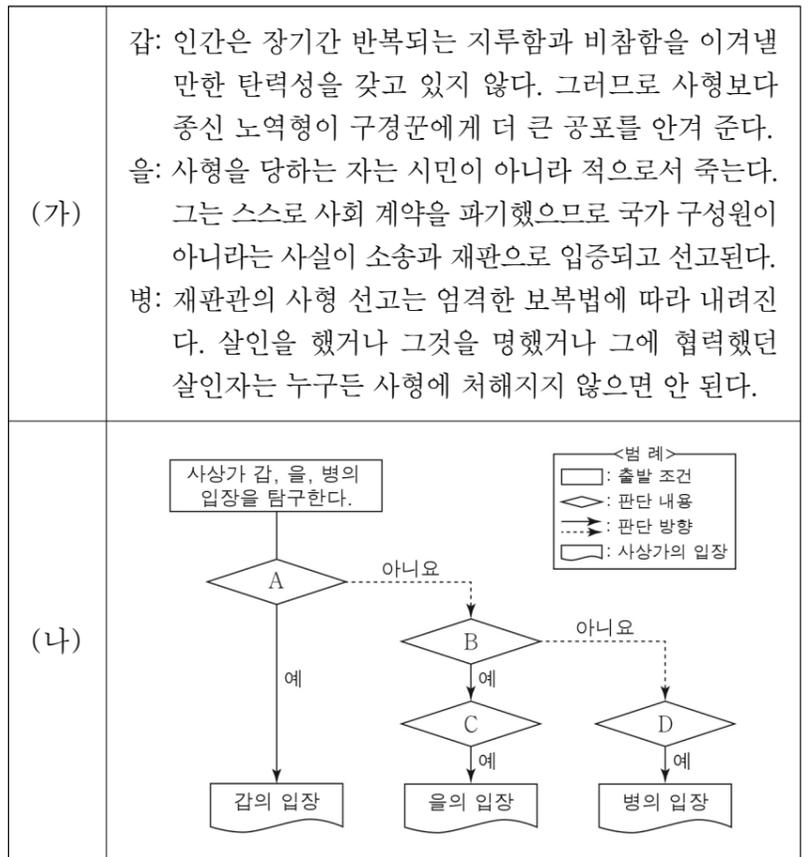


< 보기 >

- ㄱ. 갑: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 권리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
- ㄴ. 갑: 태아의 생명권과 성인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ㄷ. 을: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인 태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ㄹ. 갑과 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ㄱ. A: 국가가 사형제를 채택하는 것은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 ㄴ. B: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 ㄷ. C: 살인범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 ㄹ. D: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려가 '발우'라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식사하는 행위를 '발우공양'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지 허기를 달래고 몸을 살리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발우공양'에 참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 남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바람, 흙과 물 등 자연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의 노고 없이는 우리 입에 들어올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식사를 매개로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연습도 하게 됩니다.



- 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평등함을 실천할 수 있다.
- ② 음식을 먹으며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 ③ 음식을 통해 만물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 ④ 음식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 ⑤ 음식을 먹는 행위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할 수 있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실현된 국가는 부(富)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을: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선(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① 갑: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다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한다.
- ② 갑: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합의한다.
- ③ 을: 부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 ④ 을: 사회에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부정의하다.
- ⑤ 갑과 을: 국가는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종교적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한다. 동시에 이 세계 안에는 성스러운 것, 즉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반면에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체이며 행위자라고 간주하며, 초월적인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럼에도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비록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종교적 인간은 세계 그 자체를 성(聖)으로 간주한다.		✓	✓		✓	
종교적 인간에게 어떤 사물은 성현(聖顯)이 될 수 있다.		✓		✓		✓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다고 믿는다.				✓	✓	✓
비종교적 인간이라도 종교적 의례나 신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4.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성향상 장인(匠人)인 사람이 우쭐해져서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속의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이들의 참견은 나라에 과멸을 가져다 준다.

을: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장인이 하는 일을 고루 갖추어 반드시 자신이 모든 물건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야 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길바닥으로 내얹게 만드는 일이다.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다.

< 보기 >

- ㄱ.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지려면 통치자에게 덕이 요구되는가?
- ㄴ.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은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가?
- ㄷ. 장인의 재산 소유가 금지될 때 정치에서의 이상이 실현되는가?
- ㄹ. 사회적 직분은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해 정해져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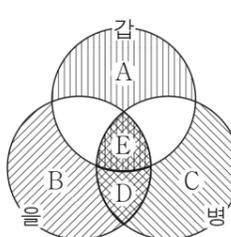
(가)

갑: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그런 행위는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을: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다.

병: 모든 생명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나)



< 범례 >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E: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 ① A: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 ② B: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③ C: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
- ④ D: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⑤ E: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어떠한 가치도 지닐 수 없다.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학급 게시 자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급 게시 자료 정보 윤리 교육

추천 알고리즘의 두 얼굴, 편리와 편향

최근 SNS나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널리 쓰이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근거해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정보를 위주로 다양한 정보들을 추천해 준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검색의 수고를 덜어 주고 생활에 편리를 더해 준다.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를 주로 접하게 하여 정보 수용자를 편향된 정보 속에 갇히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수용자가 편향된 정보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

- ① 자신의 성향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배제해야 한다.
- ② 추천된 모든 정보가 객관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③ 자신에게 편리를 주지 않는 정보를 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 ④ 매체 이용을 금지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 ⑤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영구 평화를 위해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을 없애야 한다. 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만든다 해도 국가 간 계약 없이는 어떤 평화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을: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며,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 ① 갑: 상비군의 점진적인 확대는 영구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 ② 갑: 개별 국가가 평화 연맹에 소속하려면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 ③ 을: 진정한 평화의 구축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도 허용되어야 한다.
- ④ 을: 의도적인 폭력을 제거해도 비의도적인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평화가 보장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을: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공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민들을 도와야 한다.

< 보기 >

- ㄱ. 갑: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 ㄴ. 갑: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여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ㄷ. 을: 원조가 산출할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원조는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윤리적 의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산물을 의미합니다. 예술가와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매개로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을: 맞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과정에서 감상자는 예술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술이 감상자의 성품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윤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예술이 윤리에 의해 평가되면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침해받을 것입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예술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윤리로 예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방해하는 예술 작품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 ① 예술은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것인가?
- ② 예술은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③ 예술은 감상자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 ④ 예술은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인가?
- ⑤ 예술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으로부터 창조되는가?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위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행위이다.

< 문제 상황 >

적극적 안락사
입법 반대!

극심하게 고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안락사 허용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

적극적 안락사
입법 찬성!

A

- ① 고통받는 환자의 행복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인지 고려하세요.
- ② 법안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에 부합되는지 고려하세요.
- ③ 공동체 내에 유덕한 시민이 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세요.
- ④ 법안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하는지 고려하세요.
- ⑤ 고통받는 환자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법안인지 고려하세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